

## 광주·전남 납세자, 우체국서 '국세환급금 계좌 개설 신고' 가능

광주국세청과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 MOU  
 광주·전남 340여개 우체국서 가능... 불편 해소  
 세무서 없는 산간·도서지역 주민 편리 증진 기대

전남지방우정청(청장 이승원)과 광주지방국세청(청장 박석현)은 지난 6일 정부광주중합청사에서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런 협약을 통해 광주·전남지역 340여개 우체국에서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납세자들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접수해야 할 '계좌개설 신고서'를 우체국에서 안내하고 제출받아 세무서로 인계함으로써

계좌개설 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추가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세무서가 없는 시·군지역, 교통이 불편한 산간·벽지와 도서지역 주민의 편리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원 전남지방우정청장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계좌개설 신고 대행 업무가 안정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상호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광주지방국세청과 다양한 협업을 통해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은진 기자 pej269400@



전남지방우정청은 지난 6일 정부광주중합청사에서 광주지방국세청과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한 국세환급금 계좌개설 신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지방우정청 제공

**"2019년 산 비 보급중 우선공급 신청 받아요"**

5개 품종 955톤 신청 공고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2019년 산 비 보급중에 대하여 일반농가 신청에 앞서 정부지원 미국종합처리장(RPC) 등 우선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먼저 신청을 받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 정부보급중 우선공급 제도는 정부보급중의 안정적 확보 및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식품부가 지정한 '정부지원 미국종합처리장, '넛넛경영체', 시·군 농업기술센터장이 추천한 업체를 대상으로 순도 높은 우량종자를 우선 배정·공급하여 쌀의 품질 고급화를 통한 우리 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비 보급중 우선신청은 오는 15일 까지 '국립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www.seednet.go.kr)'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국립종자원 전자민원시스템(www.seednet.go.kr)'에 접속하여 '정부보급중 신청-보급중 우선공급신청' 메뉴에서 익년도 계약재배면적 및 종자 예상사용량을 등록 한 후 전남지원에서 사용승인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규업체는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에 연락 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 받은 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선 신청이 가능한 품종은 새일미 300톤, 신동진 300톤, 일미 231톤, 미품 33톤, 영호진미 91톤 총 5개 품종으로 955톤이며, 신청 물량에 대한 공급량 확정은 오는 18일부터 20일 까지 예정된 계획이다. /윤규진 기자 jin2001@

### 전남 면역치료 신약산업 급물살

전남도는 지난 7일 2019 화순국제백신포럼 개최 현장에서 국내 치료백신과 항암 면역치료 산업을 선도하는 (주)박셀바이오, (주)지씨씨엘(GCCL), 라이프리버(주), 3개 기업과 34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을 통해 바이오 제약 3개 기업은 항암면역치료제 개발 및 임상 시험,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공장 설립 등을 위해 전라남도·화순군과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지원센터와 연계해 백신 개발의 필수적인 백신 효능평가 시스템을 화순에 구축한다.

라이프리버(주)는 급성 간부전 치료제 개발과 발모제 연구 분야에서 독보적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이다. 바이오 인공간(HP) 및 세포치료제 생산을 위해 전라남도와 공동 투자한다.

3개 기업 유치로 75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특히 면역치료제 연구 개발, 임상, 생산 등 전 과정을 지원할

### 도, 화순국제백신포럼서 협약... 제약기업 3곳 투자유치

(주)박셀바이오는 2010년 화순전남대병원 교수진이 창업한 바이오 벤처회사다. 간암과 혈액암 면역치료제를 개발하고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2020년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에 면역세포치료제 기술 투자와 생산공장 설립에 나선다.

(주)지씨씨엘(GCCL)은 국내 최대 면역치료제 연구 생산 기업인 GC녹십자랩셀과 씨엔알리서치가 합작한 임상시험 전문 분석 기업이다. 현재 식약처가 국비 213억 원을 투입해 화순에 설립 중인 국가백신제품화 기술

으로 화순백신산업특구의 기술 수준이 한층 높아지고, 전남 면역치료제 산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화순백신특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백신의 연구부터 제품화까지 원스톱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며 "2020년 완공될 국가 미생물실증지원센터, 올해 설계에 들어가는 국가 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가 좋은 결실을 맺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생태 체험으로 학업 스트레스 날려요"

장흥고등학교(교장 김광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천으로 생태 체험을 떠났다. 이날 행사는 학업에 지친 심신을 정화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학생들은 체험선을 타고 순천만을 탐방하고, 순천만의 습지생태, 습지 갈대, 청동오리와 두루미의 먹이 활동 등 습지생태를 직접 관찰하며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을 의미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장흥고등학교는 기숙사에서 고생하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기숙사 체육활동, 기숙사 문화 활동 등의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장흥=김정근 기자

장흥고등학교(교장 김광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순천으로 생태 체험을 떠났다. 이날 행사는 학업에 지친 심신을 정화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학생들은 체험선을 타고 순천만을 탐방하고, 순천만의 습지생태, 습지 갈대, 청동오리와 두루미의 먹이 활동 등 습지생태를 직접 관찰하며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을 의미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장흥고등학교는 기숙사에서 고생하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주말을 이용해 기숙사 체육활동, 기숙사 문화 활동 등의 행사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장흥=김정근 기자

김삿갓도 반한 국화동산에서

2019 화순

# 국화향연

2019.10.25.(금) - 11.10.(일)  
 화순읍 남산공원 일원 17일간